

식도의 양성 종양에 대한 외과적 치료

고신대학교 의학부 흉부외과학교실

김대연·조성래·천수봉·이창민·김수현·김승명

식도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은 매우 드물어 악성 종양의 10%미만을 차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신대학교 의학부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9년부터 1995년 6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수술치험한 식도 종양 총 169례 중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으로 판명된 18례를 대상으로 임상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남자 10명, 여자 8명으로 남녀비슷하였고, 연령분포는 최저 6세에서 62세로 다양하였으나, 30대가 9례 (50%)로 가장 많았다.

병리조직학적 분류로 평활근종이 12례 (66.7%)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2례에서는 용종과 식도게실이 각각 1례씩 합병되어 있었다. 그 외 점막용종이 3례, 낭종이 2례, 유두종이 1례였다.

임상증상은 연하곤란이 5례 (27.8%), 상복부 동통이 5례, 오심이 2례, 호흡곤란, 소화장애가 각각 1례씩 있었으며,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5례였다.

발생부위는 평활근종의 경우 식도 중부 1/3에 발생한 경우가 6례 (50%)로 가장 많았으며, 상부 1/3과 하부 1/3에 각각 3례 (25%)씩 발생하였다. 점막용종은 중부 1/3에 2례, 하부 1/3에 1례였고, 낭종은 상부 1/3과 하부 1/3에 각각 1례씩 발생하였으며 유두종은 중부 1/3에 발생하였다.

진단은 18례 모두에서 식도조영술 및 내시경 소견으로 추정하였으며 평활근종에서 술전에 내시경 검사시 병리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는 12례중 4례였으며, 1례는 종격종양으로 추정하였으나 수술중 식도 평활근종으로 확인 되었다.

치료는 12례의 평활근종중 9례에서는 종양적출술만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3례중 식도게실이 동반된 1례에서는 게실절제술을, 점막용종이 동반된 1례에서는 점막용종절제술을, 그 외 점막과 유착이 심했던 1례에서는 점막의 일부와 함께 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술후 합병증은 3례에서 발생하였는데 점막용종절제술을 시행한 1례에서 식도 절개부의 누출이 발생하였으나 보존적요법으로 치유되었으며, 평활근종 적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무기폐, 창상감염, 간염이 각각 1례씩 발생하였으나 큰 문제없이 치유되었다.